

평화 찾아 떠난 '108산사순례단'

KBS1 특집 다큐 '룸비니에서 DMZ까지...'



108산사 순례단의 평화의 불 이온 과정을 담은 KBS1 특집 다큐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밝히다'가 7월 28일 방송됐다.

부처님의 진리 찾아 구범 여행

'평화 불'로 인류 화합 모색

108산사 순례단(회주 선목 혜자 스님)이 룸비니에서 한국까지 밝힌 평화의 불이 전파를 뒀다. 정전60년 KBS1 특집 다큐멘터리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밝히다'가 7월 24·28일 4시 10분 각각 방송됐다.

이번 방송은 108산사 순례단이 지난 4월 네팔에서 채취한 평화의 불을 네팔, 티베트,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등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로 담아냈다. 총 50분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총 4개월 동안 두 차례의 해외 촬영을 마치고 대중들을 찾아갔다.

담당 배성호 피디는 이번 성지순례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나오는 구범 여행과 닮아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목 혜자 스님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부터 혜초 스님이 걸었던 길을 역으로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찾고자 고난의 여정을 떠났다"고 전한다.

히말라야에서 '영원의 불'을 채취하고 룸비니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합화해 최초의 '평화의 불'이 탄생하게 된다. 순례자들의 손에 들려진 평화의 불은 구도의 길 위에서 분쟁지역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을 담고,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순례길에 오른다.

구범의 길을 걸은 평화의 불은 마지막 한반도, 임진각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순례자와 평화의 불이 걷는 마지막 여정은 DMZ 비무장지대다. 그리고 그곳에 구범의 길을 걸은 100여명의 순례자들과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법회를 열고, 2만km를 달려온 평화의 불은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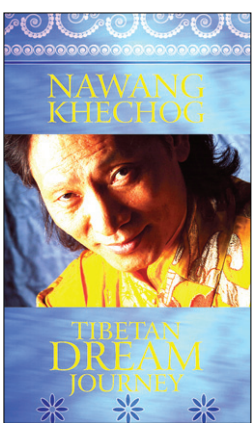
깨달음에 이르는 명상여행 떠나자

나왕케축 새 앨범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

나왕 케축이 전인류의 진정한 자비행 실천을 기원하는 앨범을 내놓았다.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Tibetan Dream Journey)'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티베트인들의 염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앨범에는 나왕 케축과 달라이 라마와 함께하는 '자비송' 등 총 11곡이 수록되었다. 나왕 케축은 대나무 피리로 영혼을 치유하는 세계적인 명상음악가다. 대나무 피리 선율, 여기에 조화로운 타블라, 피아노, 첼로, 팬파이프 등과 같은 다양한 악기의 명상적 선율 등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특히 앨범 제목이자 수록곡 중 하나인 기도 한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은 꿈수행 명상법이란 의미로 잠자면서도 각성을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

유지하며 수행하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전통 명상법을 말한다. 이 명상법은 우리가 꿈을 환상으로 인식하며, 중생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을 보살피기 위해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여행의 일부가 꿈수행임을 말하고 있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인도 전통춤으로 새 도전...그리고 '회향'

새영화 '바라, 축복' 개봉 앞둔 종사르 켄체 린포체 방한

"걸을 때 부드러움을 느끼려면 온 세상을 가족으로 덮어야 할까?"
"아닙니다. 가족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그래, 가족 신발을 신으면 될 것이니라. 그러면 어디를 가나 부드럽겠지. 나 한 사람의 발에 가족 신발을 신는 것이 온 세상을 가족으로 덮는 것과 같은 결과라 되느니라...나 한 사람의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다면 내 마음의 복수심과 적대감 유혹과 사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친 것과 같다."

영화 '더킵(1999년)'에 나오는 주지 스님과 동자승의 대사다. 더킵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축구 결승전에 사로 잡혔던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로 스님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담았다. 영화는 당시 토론토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영광을 안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화 더킵을 제작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티베트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 중 한 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한국을 방문한다. '나그네와 마술사(Travelers and Magicians,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영화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의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한 스님은 8월 2일~4일 한국을 방문 법문을 펼친다. 방한을 앞두고 있는 스님을 이메일 인터뷰로 미리 만나보았다.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은 인도 전통 춤과 인도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다. 스님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도 전통 춤을 무척 좋아해서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익숙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번 영화는 매우 도전적인 소재였어요.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도 사원을 배경으로 신분이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티베트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 중 한 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8월 2일~4일 한국을 방문한다.

'더킵' 감독으로 호평 받은

세계적 영화 감독이자 스님

인도 배경으로 신작 연출

'영화는 남 돕는 좋은 방편'

8월 2일~4일 한국 방문

다른 남녀의 이야기죠. 춤을 추는 여인이 신분이 낮은 조카가 남자의 모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영혼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님은 늘 인도가 친숙하다고 전한다. "인도는 불교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인도 문화와 인도 현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란 곳도 인도죠. 인도 문화는 저한테 늘 큰 감동을 줍니다."

스님의 영화는 굳이 불교적 메시지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스님에게 있어 영화는 좋은 도구라고 말한다. "불교 수행자는 과학자하고 비슷합니다. 과학자가 과학하고



인도춤을 소재로 한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의 한 장면.

아무 관계가 없는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만들었다고 해서 꼭 그 영화가 불교일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매체입니다. 불교는 도죠. 영화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저는 제 능력만큼 좋은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상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정말 잘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는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저는 전문 감독은 아니에요. 영화에 관심은 있지만 이것이 중심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의 내면 깊숙이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늘 더 뛰어난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발전에만 치우쳤던 한국인들이 이제 불교의 고전적인 지혜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번 방문 동안 △8월 2일 오후 7시 유나방송 '마음의 자유' △8월 3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 '일상의 명상' △8월 4일 오전 10시 상도선원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지혜' 등의 법문으로 대중들을 만난다.

한편,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났고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잠양

켄체 왕포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됐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의 고문을 맡았다. 이후 '더킵' '나그네와 마술사' 등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스님은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의 스님 2,000명을 돌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행센터 '시다르타의 의도(Siddharta's Intent)'를 설립했다. 또한 '연꽃 활동(Lotus Outreach)'으로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켄체 재단(Khyentse Foundation)'도 설립했다.

http://cafe.naver.com/shechenkorea (02)353-215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5세기 불복장유물 한눈에 본다

대구박물관 '흑석사...'展 8월 4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 특별전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展이 8월 4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아미타삼존불조성보존문, 아미타삼존불복장기, 묘법연화경, 사리보, 사경보 등 유물 60여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불복장은 1993년 11월 5일 국보 제282호로 일괄 지

정됐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흑석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불복장은 2002년 2월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수탁 보관하고 있다.

대구박물관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458년에 정암산 법천사에서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를 비롯해 태종의 아들인 효령대군, 세종의 부마인 연창위 안맹담 등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한다"고 설명한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 유물 중 하나인 '아미타삼존불조성보존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불복장은 아미타삼존불조성보존문과 아미타삼존불복장기,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조삼경합부, 묘법연화경 등의 전적류와 사리보, 사경보 등의 다양한 직물류, 사리

사리용기, 오함·오악·오락·오곡·칠보 등이다. 이들 불복장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성연도를 알려줄 뿐 아니라 서지학,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안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천상기도

1999.08.18

1999.08.09

천상허공기도 20년, 해돋이 석양기도 12년, 자시 1000일 기도를 원만성취한 소승이 성남 기원정사에서 천상 기도중 11시경 한밤중 무지개가 3번 나타나고 서광이 비춰지는 희유하며,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정사에서 기도 하실 분 및 영적문제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기원정사 017-257-6795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